

# “ ‘전라감영 달빛잔치’ 놀러 오세요”

전주시, 3월 2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2회차 운영... 감영 입장·감영 가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는 겨울철 전라감영 활성화를 위해 '전라감영 달빛잔치'라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라감영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활용해 행사 참여자뿐 아니라 전라감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귀빈 방문 시 열었던 연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감영 입장 △감영 가배 △감영 J'안상 △감영 EDM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달빛잔치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감영 입장'을 만날 수 있다. 감영 입장은 전라감사와 장금이를 맡은 배우가 관광객들을 맞아 전라감영의 역사와 부속 건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에 한층 재미를 더해준다.

이어 선화당 내부에서 진행되는 '감



전주시는 겨울철 전라감영 활성화를 위해 '전라감영 달빛잔치'라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 가배'로, 고종황제가 즐겨 마셨다 고 알려진 가배(커피)에서 착안한 미

닛맛돌 커피드립 체험이다. 또, 체험 중에는 가아금 연주자의 공연을 즐기며 차담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또 '감영 J'안상'에서는 전주 10미 중 하나인 콩나물을 전으로 직접 부쳐 맛을 보고, 모주(성인)나 대추차(미성년)를 함께 즐길 수 있고, '감영 포도'는 전라감영 부지포토존에서 외부 사진작가가 직접 사진을 촬영해 개인 메일로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라감영 달빛잔치'는 매주 주말 오후 6~9시까지 1시간 30분씩 2회차로 운영되며, 각각 30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인터넷(티켓링크)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가격은 5천원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호남의 수부(首府)인 전라감영은 조선시대부터 옛 도청사를 거쳐 현재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감영의 가치와 역사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4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4명과 청소년 1명 총 5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 개최

'나눔의 기쁨 실천' 전주시민 5명·1개 단체 전주시장 표창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온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전)는 지난 7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4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4명과 청소년 1명 총 5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일반인 부문에서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문서 작성 및 관리 사무 지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오연화 씨(27세, 여)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식당 관리와 배식 봉사를 해온 이영자 씨(78세, 여)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에서 조리 및 배식 봉사, 열매 봉사활동 등을 실시해온 최운순 씨(68세, 여)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정성평가 일반인 부문에서는 지난해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해 평화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주

민원터 관리와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박찬임 씨(71세, 여)와 전주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식품 등 나눔 활동을 하거나, 요리 및 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쳐온 2024년 소규모 최고실적 봉사단체인 '동굴대봉사단'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와 함께 청소년 부문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며 노인들을 위한 봉사와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봉사활동을 실시해온 김현승 군(16세, 남)이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평소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해 전주시를 인정 넘치는 천사의 도시로 만들어준 모든 봉사자분께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전주시 자원봉사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봉사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전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방문

시설 현황·프로그램 점검·차질없는 운영 당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주)가 7일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등을 살피고 차질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김원주 위원장은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는 시민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증가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는 지난 1973년 조성한 평굴형 방공호로 보존 및 관광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해 지난 4일 미디어아트 전시관 형태로 재탄생했다.

이 시설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10개의 콘텐츠로 총 15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대표 콘텐츠인 '차원의 문'의 경우 LED 모듈과 거울을 활용해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빛의 조화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7일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등을 살피고 차질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 평화2동 화재 피해 주민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전주시 평화2동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 지난 12월 12일 발생한 화재로 가계를 비롯 집기류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위해 평화2동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 지역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10개의 단체회원들이 십시일반 1천2백만원, 시각장애인 연합회 및 전주 스포츠클럽 등 4곳에서 5백만원을 공동모금회

를 통해 기탁했다.

양희주 주민자치위원장은 "화재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생단체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이번 성금으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2동 이은혜 동장은 "이따른 자생단체들의 성금 모금으로 기부문화



가 많이 확산되는거 같아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 준 성금은 화재로 사업장을 잃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

민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문 컨설팅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지난 7일 공동주택 내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세대점검 방문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리업자·관리자·입주민이며 입주민이 자체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기간 내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